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의 시공간성 연구 - 실패한 유토피아에서 반-디스토피아로

정윤영*

1. 들어가며
2. 밀실의 크로노토프와 실패한 유토피아
 - 2-1. 중단 불가능한 시(공)간성으로서 '타임 루프'
 - 2-2. 탈출 불가능한 (시)공간성으로서 '심해 기지'
3. 길의 크로노토프와 반-디스토피아적 전회
 - 3-1. 비영웅적 회귀자와 인식적 지도 그리기
 - 3-2. 입체적인 조연들과 다시-시작하는 세계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 인기 웹소설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이하 〈어바등〉)의 독특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전반적인 주제 의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텍스트의 시공간적 배경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크로노토프 개념에 준할 정도로 서사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어바등〉에서 일반적인 '회빙환' 서사와 구별되는 독특한 시공간성이 재현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가령, 소위 '타임 루프'라고 일컬어

* 유한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강사

지는 이 작품의 비선형적 시간성은 주인공의 능력 신장이나 외부적인 상황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위치한 수심 3000m 아래 심해 기지의 물리적 구조 및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점차 확장해 나갈 따름이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심해 기지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그의 목적은 심해 기지에 대한 탐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며, 독자들은 그의 위태로운 탐험이 ‘실패한 유토피아’인 우리의 지금-여기에 관한 철저한 인식적 지도 그리기(cognitive mapping)에 다름 아님을 알게 된다. 그것은 일찍이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개인이 처한 방향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정치적 실천으로 제시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어바등〉이 국내 웹 문학의 서사적 실험과 동시대적 시대감각에 근거한 담론 형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는 〈어바등〉의 ‘회귀’ 요소가 최근 웹소설 시장에서 유행한 서사 장치를 단순히 차용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데 쓰인 사례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는 의의, 그리고 양질의 텍스트를 통해 국내 웹소설 연구의 시급한 과제인 작품론의 공백을 채운다는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웹소설, 현대 판타지, 회빙환, 타임루프, 크로노토프, 인식적 지도 그리기)

1. 들어가며

SF 및 현대 판타지 장르에 속하는 웹소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이하 〈어바등〉)는 연산호의 공식적인 데뷔작으로, ‘SF어워드’ 웹소설 부

문(2022)과 ‘리디 어워즈’ 판타지 e북 부문(2022, 2023)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89화에 달하는 본편을 완결지었고 2024년 3월에 외전 연재를 마쳤는데, 2025년 10월인 현재에도 (주)리디의 판타지 웹소설 부문에서 월간 베스트 2위를 점하고 있다.¹⁾ 이와 같은 객관적 지표들은 〈어바등〉이 “기존의 웹소설에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공식처럼 여겨졌던 지점들을 다소 비껴가거나 소위 유행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갖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서 당대의 웹소설 독자들을 넉넉히 설득했음을 보여준다.²⁾ 아쉬운 점은, 국내 웹소설 지형의 일 진보에 여러모로 공을 세운 텍스트임에도 〈어바등〉의 고유한 서사 전략과 담론적 성취에 대한 개별적 작품론은 아직 한 편도 출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0년대 이래로 본격화된 대다수의 웹소설 연구는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형식에 관한 매체 연구, 웹소설 내부의 여러 서사소에 관한 장르론적 연구, 특정 주제 아래로 여러 텍스트를 집합시켜 재연 가능한 연역적 논리를 도출하고자 한 연구 등으로 대별된다.³⁾ 최근에는 이지용, 남유민, 류수

1)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의 연재본 본편은 2021년 5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외전은 2023년 1월 8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 (주)문피아에서 공개되었다. 이후 단행본 작업을 통해 전자책으로는 본편 16권과 외전 1권, 종이책으로는 3권 분량으로 출간되었다. 이 글에서 〈어바등〉의 본문을 인용할 때는 (주)리디의 전자책 단행본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책의 특성상 쪽수가 아닌 권수로 구체적인 출처를 표기한다.

2) 이지용, 「한국 SF 어워드 2022(제9회) 웹소설 부문 수상작 및 심사평」, SF 어워드, <https://sfaward.kr/77> (접속일: 2025.10.22.) 동 대회 심사위원이었던 북마녀와 손진원 역시 〈어바등〉의 비교적 느린 서사 전개에 주목했다. 연재형 웹소설의 경우 초반 회차에서 독자의 흥미를 강하게 끌지 못하면 소위 대거 ‘하차’에 따른 연독률 저하를 각오해야 하는데, 〈어바등〉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만의 속도를 주장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어바등〉이 무료 연재 100화분을 넘겨서야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뒤늦게 유료화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3) 이용희의 「국내 웹소설 연구 현황에 대한 비판적 점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제33권 1호, 2025,

연 등 여러 웹소설 연구자에 의해 웹소설 비평의 부재가 꾸준히 지적됐다.⁴⁾ 물론, 웹소설 비평의 부재가 지적될 수 있던 것은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관점의 선행 연구들이 꾸준히 적립되어 온 덕분이다. 일군의 웹소설 연구자들이 웹소설의 정의, 웹소설과 장르 문학의 상관관계, 웹소설 내부의 장르적 관습 등을 지속적으로 궁구해온 결과, 최근 일이 년 사이에는 특정 작가와 작품에 관한 본격적인 비평과 연구들이 속속 제출되기 시작했다.⁵⁾ 이때 웹소설의 장르적 관습에 대한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은, 하나의 장

143-174쪽은 국내 웹소설 연구사를 ‘웹소설 개념 형성기’·‘웹소설의 정체성 확립기’·‘웹소설 개념 해체기’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 여기에서 세 시기는 ‘네이버 웹소설’ 서비스가 본격화된 2013년,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의 메가 히트작이 등장하고 웹소설 시장의 규모가 약 4,000억 원에 도달한 2018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웹소설 작법 강요가 대중화된 2020년으로 각각 특정되는데, 이용희는 각 시기의 주요 연구를 돌아보면서 웹소설 시장이 지속적인 변동을 겪는 만큼 웹소설의 정의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웹소설 연구는 매 연구에서 “과감히 결별하여야 할 연구를 결별”(같은 글, 170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해당 연구의 위치를 밝히는 일일 것인바, 이 논문은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PC, 스마트폰 등 웹 환경을 기반으로 발표되는 서사 텍스트’라는 최소한의 이해로 갈음하고 연구 대상의 문학사회학적 가치를 주목하는 데 힘쓰으로써, “웹소설과 매체의 역사를 논해야 하고, 연구자가 생각하는 웹소설의 정의를 세우는 작업들을 지난하게 반복해야”(이지용, 「웹소설의 정의 문제와 가치에 대한 재고」, 『한국문학연구』 제70권 70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2, 66쪽) 하는 국내 웹소설 연구의 한 난감한 ‘전통’을 피해 가 고자 한다.

- 4) 류수연, 「웹소설, 산업의 형성과 과제」, 『K-문화융합저널』 제1권 2호, K-문화융합협회, 2012, 12-15쪽; 남유민, 「한일 웹소설에 관한 일고찰: 웹소설 플랫폼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118호, 한국일본학회, 2019, 107-126쪽; 김준현, 「웹소설 장에서 사용되는 장르 연관 개념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107-137쪽.
- 5) 홍우진·신호림, 「웹소설 〈소설 속 엑스트라〉의 빙의 화소를 통해 본 정체성의 문제와 가능세계의 양상」, 『국제어문』 제91호, 국제어문학회, 2023, 7-38쪽; 김정희, 「설화 〈우렁색시〉와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서사 비교를 통해 본 ‘두 번째 결연’의 서사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60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83-214쪽; 오예슬, 「‘성좌물’ 웹소설의 서사적 특성 연구: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24; 문은혜, 「알파타르트 웹소설의 서사 전략 연구」, 『대중

르적 관습 안에서 혼성모방(pastiche)에 가까운 변주가 계속해서 시도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창조적 확장이야말로 해당 장르의 불안하고 활기찬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작품을 통해 어떤 장르적 관습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작업의 생명력은 다소 짧을 수밖에 없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직 쓰이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작품으로 반박될 여지를 감수하면서 출발한 비교적 무른 주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선행 연구의 이론적 성과를 적극 참조하되 학술적 접근이 시급한 텍스트들을 부지런히 추수하면서 작가론 내지는 작품론을 더욱 활발하게 생산할 필요가 있다. 특정 텍스트가 그것이 속한 장르의 관습들을 어떤 방식으로 비틀고 있는지 밝히는 일은, 해당 텍스트의 고유한 가치를 밝힌다는 일차적인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특정 장르적 관습의 변천사를 아카이빙하는 더 큰 작업의 일부로서 훗날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어바등〉의 작품론을 표방하는 이 글에서는 해당 텍스트에 재현된 독특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전반적인 주제 의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어바등〉은 심해 3,000m 아래에 있는 해저 기지의 유일한 치과의사로 취업한 주인공 박무현이 몇 차례의 회귀를 거듭함으로써 바닷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한 그곳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다. 즉, 이 텍스트는 극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과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힘이 병존하는 세계를 그린다는 점에서 근미래 SF와 현대 판타지가 혼합된 장르 서사이고⁶⁾, 주인공이 ‘타임 루프(Time loop)’를 통해 몇 번의 죽음과 되살아남

서사연구』 제21권 1호, 대중서사연구학회, 2025, 7-38쪽.

6) 웹소설 연구사에서 웹소설과 장르소설의 개념 구분 또는 교섭 양상 문제는 첨예한 논

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국내 웹 문학의 주된 서사 전략인 ‘회빙환(회귀·빙의·환생)’ 모티프를 활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⁷⁾ 주목할 점은, 이 텍스트의 거의 모든 서사 요소가 하나의 주제 의식을 위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질러 말하자면, 〈어바등〉은 포스트모던 사회 그리고 기후 재난 사회의 인식론적 위기를 마주한 우리 인간 종(species)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다.

텍스트 분석을 위해 도움받고자 하는 개념적 도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걸출한 이론가들인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과 프레드릭 제임슨

쟁의 자리였다. 노희준은 웹소설을 장르소설 그 자체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장르소설이 “순수소설과 웹소설 사이의 중간문학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고(노희준, 「플랫폼 기반 웹 소설의 장르성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64권, 세계문학비교연구학회, 2018, 415쪽), 류수연은 “장르소설의 하위개념일 수는 있어도 장르소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웹소설이 장르소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류수연, 「웹 2.0 시대와 웹소설」, 『대중서사연구』 제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30쪽). 이 외에도 대중소설, 인터넷소설, 장르소설 등 다양한 용어들이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사 텍스트를 장르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동원돼왔다. 그러나 ‘순수문학’의 ‘순수성’이 지극히 허구적인 것으로 판명된 현실에서, 순수소설이나 장르소설의 또 다른 타자로서 웹소설을 이해하기보다는 웹소설의 다양하고 복잡한 장르 생태계에 주목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장르’는 한층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텍스트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정한 관습과 규약을 근거로 임의적이고 임의적인 분류 체계(category)를 생성 및 유지하는 비평적 인식 단위이다. 예컨대 로맨스, 미스터리, 판타지, SF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장르들은 특유의 느슨한 규범에 바탕하여 다른 장르와 활발히 교섭하기도 한다(김예니, 「웹소설의 미감과 장르교섭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4권, 한국문예비평연구학회, 2019, 50쪽).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본문에서 사용된 ‘장르 서사’라는 용어는 후자의 장르 개념에 더욱 가깝다.

- 7) 소위 ‘회빙환’이라고 불리는 요소는 모티프, 마스터 플롯, 서사 등 여러 서사 이론 개념과 결합하여 유연하게 이해될 수 있다. 가령 텍스트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최소 단위의 유의미한 사건으로서 하나의 모티프라고 볼 수도, 전체 웹소설의 상당 부분을 점유한 주류 플롯임에 주목하면서 마스터 플롯으로 파악할 수도, 해당 요소가 전체 이야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선 ‘회빙환’의 시간 구조가 드러나는 텍스트 일군을 ‘회빙환 서사’로 총칭할 수도 있다. 한편, 〈어바등〉이 ‘회빙환’ 요소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2장 1절에서 후술된다.

(Fredric Jameson)의 논의이다. 일단 바흐친으로부터는 그의 소설론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로 꼽히는 크로노토프(chronotope) 개념을 참고한다. 그는 한 텍스트의 시간성과 공간성이 근본적으로 불가분하다고 주장하는 크로노토프 개념을 통해 그러한 시공간성이 “본질적으로 장르를 규정하는 의미”⁸⁾를 지닌다고 역설하며, 문학 텍스트 속의 “인간 형상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크로노토프적”⁹⁾이라는 단언까지 나아간 바 있다. 그의 말대로, 〈어바등〉의 인물들은 그들이 속한 세계의 시공간적 조건과 매우 각별하게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무너져가는 ‘심해 기지’는 인물들이 자신의 개성적인 담론을 펼치기 위한 공간적 조건이고, 그러한 재앙이 거듭 반복되는 ‘타임 루프’의 상황은 인물들의 담론이 변화할 가능성을 허락하는 시간적 조건이다. 또한 제임슨으로부터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자신의 좌표를 설명하지 못하는 길 잃은 주체의 형상, 그리고 그러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인식적 지도 그리기(cognitive mapping)’라는 개념을 빌린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인식적 지도 그리기는 세계의 총체성(totality)을 파악하기 힘들어진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상상계적으로 재설정하려는 미학적·정치적 실천이다. 이는 〈어바등〉의 주된 공간적 배경인 ‘심해 기지’를 포스트모던적인 곤경을 겪는 현대 사회의 알레고리적 표상으로,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애쓰는 주인공 ‘박무현’을 인식론적 주체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타임 루프’의 시간성과 우리의 지금-여기를 알레고리적으로 표상하는 ‘심해 기지’의 공간성이 크로노토프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각종 이데올로기적 폭력으로 얼룩진 종말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할지 질문

8) 미하일 바흐친,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창비, 1998, 261쪽.

9) 미하일 바흐친, 위의 책, 같은 쪽.

하는 당대적이고 시의적인 텍스트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바흐친과 제임슨의 논의를 함께 원용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두 사람이 인간 종의 미래에 거는 기대는 놀라울 만큼 낙관적이며, 이점은 <어바등>의 가장 근본적인 세계 인식과 직결돼 있다. 가령 바흐친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민중의 불멸성을 근거로 왕과 광대의 관계가 거꾸로 전도될 축제의 시공간성이 반드시 도래하리라 역설하는데, 여기에는 기실 불충분한 현재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전제돼 있다. 또 제임슨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우리가 자기 위치를 인식적으로 지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직 세계를 변화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와 단절하라는 명령,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유토피아적 명령”¹⁰⁾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선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포기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 즉 반-디스토피아적 전회라는 정치적 포즈가 요구된다. 둘째로, 제임슨은 『미래의 고고학: 유토피아로 불리는 욕망과 여러 SF들』(*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에서 바흐친의 크로노토프 개념을 사용하여 SF 장르의 시공간성에 대해 논평했다.¹¹⁾ “과학소설을 통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지도 그리기”¹²⁾를 실천한 그 글에서, 그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the not yet)’ 가능성을 사유하면서 세계에 대한 총체성을 복원하려

10) 임경규, 「프레드릭 제임슨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재적 가치: 유토피아적 사유의 복원을 위하여」, 『영어권문화연구』 제14권 1호,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021, 145쪽.

11) 이와 관련해서는 바흐친과 제임슨으로부터 각각 ‘크로노토프’와 ‘인식적 지도그리기’ 개념을 원용하여 국내 SF 소설의 시공간성 재현 양상을 살핀 다음의 연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인성, 「한국 SF 문학의 시공간성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45-288쪽.

12) 임경규, 앞의 책, 151쪽.

는 다양한 이야기들로부터 SF, 특히 유토피아 SF가 지닌 희망의 역량을 길어낸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할 때, 두 이론가의 논의들은 유토피아의 도래 (불)가능성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텍스트인 〈어바등〉을 읽기에 꽤 합리적인 틀이다.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론의 2장에서는 〈어바등〉의 시공간성 분석을 위해 해당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반복된 회귀, 즉 ‘타임 루프’ 모티프가 갖는 ‘중단 불가능한 시(공)간성’의 의미와 그 효과를 알아보고, 그러한 비선형적 시간성에 얽힌 ‘심해 기지’의 ‘탈출 불가능한 (시)공간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어바등〉의 시공간성이 ‘밀실의 크로노토프’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시(공)간성’과 ‘(시)공간성’이라는 용어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비이분법적으로 사유하는 바흐친의 관점을 포함한 것으로, 논의 전개와 편의성을 위해 2장의 각 절에서는 시간성과 공간성 각각에 방점을 두어 분석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밀접히 삼아, 주인공 ‘박무현’이 수행하는 인식적 지도 그리기 및 그러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조연 인물들이 비로소 전경화되고 입체화되는 양상을 살핀다. 또 그런 그들이 이미 망한 세계를 덜 망한 세계로, 다시 말해 실패한 유토피아에서 반-디스토피아로 바뀌어나가는 장면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어바등〉의 시공간성이 주인공의 인식적 지도 그리기라는 정치적 실천을 통해 ‘밀실의 크로노토프’에서 ‘길의 크로노토프’로 변형되는 과정을 좇고, 그것이 이 텍스트의 주제 의식과 맞닿아 있음을 밝힐 것이다. 질러 말해, 〈어바등〉은 “멀망이 올 미래를 버리고 유토피아를 찾아 과거로”(16권) 향하는 모든 회고적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세계가 이미 망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냉철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고쳐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16권)이야말로 전 지구적 재앙에 대항할 거의 유일한 준거점이라고 주장한다.

2. 밀실의 크로노토프와 실패한 유토피아

2-1. 중단 불가능한 시(공)간성으로서 ‘타임 루프’

〈어바등〉의 주인공 ‘박무현’은 최소한 다섯 번 죽고, 다섯 번 되살아난다.¹³⁾ 다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현상은 환-생(re-incarnation), 즉 하나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양상은 아니다. 박무현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과거의 특정 시점에 거듭 돌아간다. 이것은 회귀의 반복이면서, 그 무한한 반복성 때문에 시간여행 모티프의 한 갈래인 타임 루프로 설명될 수도 있다.¹⁴⁾ 기존 논의에 따르면, 타임 루프는 “시간이 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되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¹⁵⁾,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이 동일한 기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¹⁶⁾을 의미한다. 이때, 대다수의 회귀물이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손쉽게 건너뛸 수 있는 장치”¹⁷⁾로서 회귀 요소를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이야기의 초장부터 독자들에게 손쉽고 간편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준다는 음성원·장웅조의 논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회귀물은 주인공이 과거 생애에 습득한 온갖 정보와 기술을 새 생애에서 마음껏 활용하는 장면

13)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는 그가 특정 회차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그것은 작중에서 구체적으로 장면화되지 않은, 주름처럼 ‘접힌(folded)’ 기억들이다.

14) 타임루프(Time loop), 타임슬립(Time slip), 타임리프(Time leap), 타임워프(Time warp)의 차이에 관해서는 김경애의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김경애, 「회빙환과 시간 되감기 서사의 문화적 의미—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1호, 2024, 736-737쪽.

15) 김경애, 위의 책, 736쪽.

16) 노희준, 앞의 책, 418쪽.

17) 음성원·장웅조, 「웹소설에서의 회귀·환생 모티브 활용 연구: Vogler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60쪽.

들을 통해 소위 ‘사이다물’로 미끄러진다. 일례로 재벌 총수 일가의 비서로 일하던 인물이 해당 집안의 막내아들로 회귀하는 <재벌집 막내아들>이 그러하다. 그런데, 일회적인 회귀가 아닌 반복된 회귀는 사정이 다르다.

〈표 1〉 주인공 박무현의 타임 루프 과정

회차	권 및 에피소드	사망 원인
0회차	1권 「심해를 처음 접한 인간」~1권 「휴가 중」	해저 케이블카 고장으로 인한 익사
1회차	1권 「물이 샌다」~3권 「케이블카」	
2회차	3권 「다시」~5권 「19%」	안나 가르시아(무한교 용병)에 의한 총살
3회차	5권 「해야 할 일」~7권 「탈출정」	탈출정 조기 개방으로 인한 익사
4회차	7권 「실종」~9권 「시간」	무한교 신자들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서지혁(엔지니어 가담)에 의한 총살
5회차	9권 「용왕」~13권 「승배」	해저기지 붕괴로 인한 익사
6회차	13권 「운이 없는 사람」~17권 「다큐멘터리」	

위의 〈표 1〉은 주인공 박무현의 타임 루프 과정을 회차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0회차는 전체 이야기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며, 심해 기지에 막 입사하게 된 박무현이 육지에서 ‘대한도’라는 중간 지점을 거쳐 심해로 하강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어서 1회차~5회차에서는 해저 케이블카 고장·사이비 종교(‘무한교’)의 방해·탈출정 고장·해저기지 붕괴 등 여러 이유로 사망하면서, 총 다섯 번의 타임 루프, 즉 반복된 회귀를 경험한다. 흥

미롭게도, <어바등>에서 발견되는 이 반복된 회귀는 국내 웹소설의 회귀 요소 연구 가운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안상원(2018)의 논의가 일찍이 예측한 바와 여러모로 맞아떨어진다. 해당 논의는 차후 유력하게 등장할 새로운 회귀 서사의 특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했다: ①주인공 외에도 다른 인물들의 집단 회귀 가능성이 열릴 경우, ②회귀의 반복이 발생할 경우, ③회귀의 목적이 자기 계발 담론에 매몰된 자조(self-help)적 정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회귀일 경우.¹⁸⁾ 이때 박무현의 회귀는 특히 ②와 ③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재벌집 막내아들』의 똑똑하고 유능한 주인공처럼 쉬운 성장과 간편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는커녕, 각 회차에서 매번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면서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수심 3,000m 아래에 있는 심해 기지에 물이 새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는 끝없이 재연될 뿐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회차는 새로운 사인(死因)을 발명해 낼 뿐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바등>은 주인공이 죽음에 이르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무자비한 서사적 실험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래를 향해 살다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생리적 거부감이 일었다. 나는 ‘현재’나 ‘지금’이라는 형체 없는 고정점을 움켜쥔 채 1초씩 흐르는 시간들을 나침반 삼아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발판이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거 같았다. 마치 망망대해에 아무런 부표 없이 떨어져 미아가 된 거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 상황만 보자면, 나는 과거로 2번이나 돌아왔다. // 그럼 내 미래는 언제 오는 거지? 만약 내가 죽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온 거라면, 끝까지 살아 있으면 원래대로 시간이 흐르게 되는

18)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8, 299-200쪽.

진가? // 만약 내가 살아남아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는 어찌지? 이 상황에서 영원히 갇히게 된 거면 어떻게 해야 하지? (5권, 강조는 인용자)

그러므로 3회차에 들어선 박무현이 타임 루프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장면은 자연스럽다. 여기에서 그는 영원히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정지된 시간, 갇힌 시간, “정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시간”(5권)을 부정적으로 감각하면서, 그러한 비선형적 시간성에 갇힌 자신을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길 잃은 자로 형상화한다. 박무현의 자기 진술을 빌리자면, 그는 삶의 “나침반”(5권)을 빼앗긴 자이며 “망망대해에 아무런 부표 없이 떨어져 미아”(5권)가 된 자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그가 경험 중인 타임 루프는 문자 그대로 ‘죽어도’ 중단되지 않는 무한 반복의 굴레 그 자체라는 점이다. 재연하건대, 박무현은 스스로 중단할 수도 없고 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일정한 시간 안에 ‘갇혀 있다’. 이럴 때 그가 경험하는 타임 루프 현상은 그 자신을 감금하는 밀실(密室)로서, 다시 말해 시간성(chronos)과 공간성(topos)이 용의주도하게 결합된 ‘밀실의 크로노토프’로서 기능한다.

(가) “예. 멸망이 도래하면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거짓된 구원을 약속한 종교들이 죄다 몰락할 테니까요. 저희들은 멸망이 올 미래를 버리고 유토피아를 찾아 과거로 향하겠습니다.”(15권, 강조는 인용자)

(나) “더 이상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합니다. 그 어떤 노력도 무가치하거든요. (...) 그래서 과거로라도 가고 싶은 겁니다. 미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숨 쉴 때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미래를 망친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있는데 정작 저나 다른 이들은 망쳐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천천히 죽음

을 맞이하는 기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당신도 조금은 알잖습니까.”(15권, 강조는 인용자)

바흐친에게 크로노토프란 “공간 안에서 시간을 객관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구체적인 재현의 중심이자 동시에 소설 전체에 실체를 부여하는 힘”¹⁹⁾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주인공을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기 위한 크로노토프적 서사 장치로서 타임 루프가 사용되는 까닭은 〈어바등〉의 핵심적인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어바등〉은 어떤 노력으로도 “멸망이 올 미래”(15권)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디스토피아적 인식이야말로 그러한 인식의 주체를 과거의 시간에 가두고 만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위의 인용문 ①과 ②이다. 이 인용문들은 심해 기지에서 테러를 일으킨 무한교 신자들의 대사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타임루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일찍 알아차린 자들로, 그 현상을 이용하여 과거의 특정 순간으로 회귀하고자 한다.²⁰⁾ 결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미래 대신 오로지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그들의 노스탤지어적 인식은 2010년대 회귀물에서 주로 나타난 후회의 정동과 맞닿아 있다.²¹⁾ 그런 유의 후회는 “더 이상 미래를 바꿀 수 없다”(15권)는 절망을 자기 예언적으로 충족시킬 뿐이어서, 그들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개선할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하는데 실패한다. 다만, 무한교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바람을 이미 이루었다고

19)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459쪽.

20) 무한교 신자들은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 조건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친 실험을 해 왔다. 그런 그들은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대신, 과거로 돌아가는 일에만 열중한다. 다만, 교주의 정체나 회귀를 가능하게 하는 소품이 왜 보석인지 등에 관한 설명은 작중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21) 안상원, 앞의 글, 281쪽.

보아도 무방하다. 박무현이 겪고 있고 무한교 신자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타임루프는 사실상 미래를 포기한 자들의 시간성, 지금-여기를 변화시킬 모든 가능성이 삭제된 밀실의 시(공)간성 그 자체이기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전부 포기함으로써 이미 그 밀실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어바등〉은 다른 웹소설들이 회귀 요소를 활용해 온 기존의 방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2-2. 탈출 불가능한 공간성으로서 ‘심해 기지’

〈어바등〉의 타임루프 현상이 미래 없는 시간성에 갇힌 부정적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구체적인 장소인 ‘심해 기지’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0회차에서, 〈어바등〉은 새로 고용된 치과의사인 박무현의 관점을 통해 심해 기지의 곳곳을 설명적으로 제시한다. 국제해저기지(IUS; International Undersea Station) 중 한 곳인 이 북태평양 해저기지(NPIUS; North Pacific International Undersea Station)는 약 20년 전 지어진 장소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건설되었다. 첫째, 여러 ‘선진국’은 인류의 존속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없을 지경”(1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이에 해저 기지 내부에 해양오염과 해양생물 문제를 다루는 연구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둘째, 이제 인류는 자신들의 새로운 터전으로 바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인류가 이제 해산물을 섭취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시체와 쓰레기만 만드는 우주개발을 돈 먹는 하마로 판단”(1권)하고, “극소수의 인간들만 새로운 행성에서 살아남겠다는 그 원대하고도 저열한 생각을 마침내 그만둔”(1권) 것이다. 셋째로, “아직 덜 개척된 땅”(1권)인 바다의 수많은 자원

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여전히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를 떨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해저기지 내에서 누구도 무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죠. 초창기에 해저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이들이 인종과 국가와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 서로에 대한 협력과 화해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취지 자체는 좋군요. 하지만 어렵겠는데요.”

아주 이상적이다. 유토피아를 설계하며 해저기지를 만든 모양인데,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욕망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물론 그렇게 생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하지만 인간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걸 바라는 거 아닌가. (2권, 강조는 인용자)

종합하면, 심해 기지는 심각한 기후 재난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인류의 모든 과학 기술과 각종 자원을 총동원해 만들어낸 최첨단 유토피아인 듯 보인다. 가령 이야기의 초반에는, 심해 기지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카페·베이커리·수족관·레스토랑·편의점·전시회장·수족관·기념품샵·식물원 등 각종 편의 시설을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모든 이들이 “인종과 국가와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 서로에 대한 협력과 화해”(2권)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무장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이 강조된다. 제이슨 무어(Jason W. Moore)의 표현을 빌리면, 그곳은 “저렴한 자연”²²⁾을 양껏 약탈한 20

22) ‘저렴한 자연(Cheap Nature)’은 무어의 세계생태론(world-ecology)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본주의가 자연을 값싸게 생산하고 착취하는 체계적 메커니즘을 비판하는 개념이다. 무어는 특히 자연에서 생산되는 네 가지 저렴한 요소로 노동, 음식, 에너지, 원료를 꼽으면서 이들이 상호의존적인 악순환의 구조로 맞물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자본-권력-자연’의 복합체인 세계-생태계로 이해하는 관점

세기와 21세기의 풍요로운 세계를 재현한 축소판이다. 다르게는, 그런 세계에 대한 낭만적 향수와 결별하지 못한 채 영광스러운 과거를 다시 한번 살아보려는 사회 실험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제임슨이 그의 저서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문화 논리』에서 노스텔지어의 정동을 역사적 시간의 퇴행과 역사 인식의 위기를 나타내는 문화적 증상으로 파악했던 것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이런 관점에서, 심해 기지는 과거의 이미지들이 역사적 맥락 없이 파편적이고 단절적인 방식으로 모여 있는 ‘깊이’ 없는 공간에 불과하다.

박무현의 타임루프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이 하필이면 심해 기지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본격적인 타임루프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이던 심해 기지에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1권, 「물이 샌다」). 즉, 물 새는 심해 기지에서 끝없는 타임 루프를 반복해야 하는 그 난감한 상황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있는 시간성과 공간성이 하나로 맞물려 만들어진 밀실의 크로노토프 자체인 것이다. 사실, 그는 이야기의 초반부에서 “간헐 있다는 압박감”(1권)이 “생각보다 꽤 커다란 스트레스”(1권)였다면서, “마치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가 된 기분”(1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그러한 감각은 실제로 14권에 이르러, 심해 기지의 총괄 엔지니어이자 무한교의 핵심 인물인 마이클 로아커와의 대화를 통해 꽤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음이 밝혀진다. 그 역시 심해 기

을 취하면서, 자본주의가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 저렴한 자연의 새로운 ‘개척지(frontier)’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을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와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쉽게 말해 자연을 저렴하게 평가하고 착취해 온 시대는 끝났고, 그 시대에 대한 기나긴 청구서가 자본주의의 위기와 기후 재난의 모습으로 도착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글로는 다음의 두 단행본을 참고하라. 라즈 파텔·제이슨 W. 무어,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백우진 역, 북돋움, 2020; 제이슨 W. 무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자본의 축적과 세계 생태론』, 김효진 역, 갈무리, 2020.

지에서의 생활을 “거대한 어항 속에 갇혀”(14권)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곳은 “안정적인 꿈의 낙원”(14권), 즉 유토피아가 아니라 임시 피난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놓친 지점은, 심해 기지 또한 근본적으로 과거의 것을 모방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해저에서 닻새 정도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살기 편하고, 생활하기 행복하며 좋던가요? 거대한 어항 속에 갇혀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흔들리는 바람이나 해저 밖의 공기가 그리워서 미칠 거 같지 않던가요? 이런 해저 기지들은 끊임없이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 물 새는 철골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살 수 있을 만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꿈의 낙원 같은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지상의 엉망인 기후로 인해 임시로 살고 있는 대피소일 뿐입니다.” // 그 말에 나는 마이클이 처음으로 해저기지 엔지니어처럼 보였다. 마이클이 내게 이죽거리며 말했다. // “우주로 진출한다는 사업도 완전히 망해버린 이 상황에 이제 인류가 대피할 만한 진정한 장소는 바다가 아니라 과거뿐입니다.” (14권, 강조는 인용자)

그렇기에, 박무현이 타임루프를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것과 심해 기지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기실 하나의 통합된 현상이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주의·인종주의·성차별주의·종차별주의 등 인간 사회가 지구를 달궜온 여러 착취적 방식을 외면하면서 미래의 자원을 아낌없이 끌어 쓰던 과거의 풍요를 그리워하는 태도만으로는 지금-여기의 현실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짧게 말해, 심해 기지 내에서 반복되는 박무현의 죽음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기후 재난의 심각성을 환기하며, 매년 심해 기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의 회귀는 그 누구도 이 재난으로부터 손쉽게 달아날 수 없을 것임을 섬뜩하게 암시

한다. 이 지점에서 심해 기지는 기술적으로 복원된 유사-과거의 공간에서, 과거의 잘못에서 비롯된 기후 재난이 도착한 현재적 공간으로 그 의미가 대폭 확장된다. 다만 바로 그 이유로, 이때의 현재는 과거에 예측되고 저당 잡힌 현재, 과거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비)현재이다. 그런데 SF 소설이자 기후 소설(Cli-fi)로서 〈어바등〉이 가진 장점은, 현 상황에 관한 철저하고 냉정한 파악을 바탕으로 그다음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가령 박무현은 과거, 기후 재난, 심해 기지라는 밀실에 갇혀 있고 그것은 그의 불가피한 현재다. 그러나 〈어바등〉은 그 밀실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곳에 대한 인식적 지도 그리기를 제시한다. 박무현은 그 거대한 밀실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그곳을 ‘길’의 크로노토프로 바꾸어버린다.

3. 길의 크로노토프와 반-디스토피아적 전회

3-1. 비영웅적 회귀자와 인식적 지도 그리기

2장 1절에서 언급했듯, 〈어바등〉의 주인공은 여하한 회귀물의 주인공들과 다르다. 첫째로, 그의 회귀는 무언가를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두 번째 기회’가 아니다.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주인공들이 기존 삶의 남편, 계모, 자매 등으로부터 받은 배신을 양갓음하겠다는 자세로 회귀 이후의 삶에 임한다면, 박무현에게는 그러한 보복의 대상이 없다. 박무현이 겪고 있는 무한 루프는 그저 까닭 없이 닥친 것, 그래서 그 현상의 원인을 찾아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엇이다. 이는 의도적인 설정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박무현이 지난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 생활을 한 적이 있고 그

의 한쪽 눈이 의안(義眼)이라는 사실은 텍스트 안에서 몹시 대수롭지 않게 다뤄지기 때문이다.²³⁾ 둘째로, 회귀 이전의 박무현이 대단히 유능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물론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직업을 갖고 있긴 하나, 물이 새는 심해 기지에서 핸드드릴로 타인의 치아를 깎는 그의 기술은 별반 쓸모가 없다.²⁴⁾ 더구나 그는 심해 기지에 막 입사한 신참이기에,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다. 셋째로, 박무현은 반복된 회귀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대단히 발전시키지도 못할뿐더러²⁵⁾, 회귀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들을 독점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 한 조연의 말처럼 “모두가 죽는 걸 보면서, 그 경험들로 혼자 여길 유유히 탈출할 수도”(5권) 있겠지만, 그의 선택은 다르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내가 미래에 대한 정보들을 독점하고 혼자 이득을 취해봤자 결국엔 시체만 양산할 뿐이다.”(5권)

23) 이야기 후반부에서 마이클 로아커라는 인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한교에서 파악한 외부적 정보로 박무현이라는 치과의사는 열등감이 매우 심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이들을 혐오하고, 세상을 증오하며, 교통사고가 난 시점으로 반드시 돌아가고 싶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14권) 평범한 회귀물의 문법에 따르면, 그의 말대로 박무현은 자신의 건강한 신체를 상실한 ‘교통사고가 난 시점’으로 회귀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무현의 대답은 이렇하다. “기대에 못 맞춰 드렸군요. 그것도 편견입니다.”(14권) 이처럼 〈어바등〉은 이전의 회귀물과 확연히 다른 선택을 하며, 이는 웹소설의 ‘장르성’이 기존 문법을 비트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유동적인 자기 갱신을 수행하고 그로써 해당 장르의 생명력을 확보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방증한다.

24) ““의사야?” // (···) 나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 “아니요. 치과의사예요.” // 빠르게 나의 무쓸모를 알아 달라.” (4권)

25) “남이 하는 좋은 것들은 보고 배워야 하는데 전혀 바뀐 게 없군.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 나는 이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겪었는데. 아주 발전적이고 현명하다. 망할.” (4권); “살아난 것도 벌써 4번째인데 이렇게 소득이 없을 수 있다니. 이런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일까? 아니면 나만 탈출 관련 정보들을 못 얻고 있는 걸까. // ……하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박무현이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지능이 특출하게 똑똑해지거나, 몸 상태가 더 좋아지거나 하진 않으니까.”(9권)

요컨대 박무현은 결코 전형적인 영웅이 아니다. 게일 캐리거(Gail Carriger)에 따르면 그는 그 자신의 성 정체성과 무관하게 여성 영웅(heroine)다운 특징을 갖고 있다.²⁶⁾ 타인과의 연결감을 중시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으며, 모든 행동의 원인을 적대적 대상을 향한 복수로 환원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보다 이야기의 결말부에서 자신의 성취를 다른 이들과 적극적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젠더/섹슈얼리티 차원의 논의를 다른 지면으로 넘긴다는 약속 아래 그를 ‘비영웅적 회귀자’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⁷⁾ 이때, 그의 가장 비영웅적인 면모는 이것이다. 그는 자신이 탈출해야 하는 밀실, 문제의 심해 기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심해 기지 곳곳을 탐사하는 모험가처럼 매 회차에서 각기 다른 곳을 헤맨다(〈표2〉). 그 과정에서 심해 기지는 비로소 무궁무진한 사건과 만남을 여는 ‘길’의 크로노토프가 된다.

〈표 2〉 주인공 박무현의 이동 과정

회차	사망 장소	이동 동선
0회차		제주도→대한도→중앙 엘리베이터→제4해저기지

26) 게일 캐리거는 『여자는 우주를 혼자 여행하지 않는다』(『여자는 우주를 혼자 여행하지 않는다』, 송경아 역, 원더박스, 2025)에서 남성 영웅 서사와 대별되는 것으로서 여성 영웅 서사에 주목한다. 그는 여성 영웅 서사가 오직 여성에게만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타인과의 협동을 중시하고 도움을 청하는 능력을 가진 특정 유형의 인물들에게 ‘여성적’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엔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한 인물이 소위 ‘여성적인’ 서사를 끌어 나간다면, 그것은 매력적인 젠더 횡단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비남성 영웅 서사나 퀴어 영웅 서사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27) 〈어바등〉에는 남성 영웅의 특징을 독보적으로 전유하는 인물도 있다. 그는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엔지니어 가팀’의 팀장인 신해량으로, 〈어바등〉에서 신해량과 박무현의 대조적 관계는 젠더/섹슈얼리티 이론을 경유하여 더욱 정치하게 분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그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1회차	제2해저기지 케이블카	제4해저기지(백호동 숙소, 청룡동)→제3해저기지(카페, 비밀 계단)→제2해저기지(심해수족관, 전시회장, 케이블카)
2회차	제4해저기지 주작동 화물 엘리베이터	제4해저기지(백호동 숙소, 주작동(210호, 심해생물센터, 해저오염센터, 화물 엘리베이터))
3회차	제3해저기지 탈출정	제4해저기지(백호동 숙소, 카페, 주작동, 체육센터, 청룡동)→제3해저기지(생활시설, 탈출정)
4회차	제4해저기지 중앙 엘리베이터	제4해저기지(백호동 숙소, 백호동 탈출정, 중앙동, 복도, 치과, 중앙 엘리베이터)
5회차	제1해저기지 헤스페리데스의 정원	제4해저기지(백호동 숙소, 중앙동, 중앙 엘리베이터, 현무동, 현무동 잠수정)→제2해저기지(잠수정 포트, 중앙 광장, 전시회장, 카페, 비밀 계단)→제1해저기지(농장, 카페, 고압산소치료센터, 다이빙 구역)→수면 - 20m 지점→제1해저기지(헤스페리데스의 정원)
6회차		제4해저기지(백호동 숙소, 백호동 탈출정 포트, 중앙 엘리베이터)→대한도(본부 건물, 풀밭, 강당, 해변, 보트)→마셜제도(병원, 호텔)→한국

심해 기지는 수심이 얇은 대륙붕에 만든 인공섬 ‘대한도’, 그 섬 바로 밑에 있는 제1해저기지, 표해수층(-200m)에 있는 제2해저기지, 중심해층(-1,000m)에 지어진 제3해저기지, 점심해수층(-3,000m)의 상층부에 위치한 제4해저기지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정보는 0회차에서 열거식에 가깝게 설명되는데, 그것만으로 심해 기지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기란 역부족이다.²⁸⁾ 한편으로 그것은 제임슨이 말했던, 전체적인 사회 구조의

28) 실제로 박무현의 이동 동선이 매 회차에서 급격하게 달라지고, 그때마다 새로운 공간들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바등〉의 중요한 서사 전개 방식 중 하나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비공식적으로나마 심해 기지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총체성을 파악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현대 사회의 알레고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무현이 자신의 좌표를 상실하고, 방향감을 잃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가 인간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케 하는 기술 장치라고 믿었던 것들—케이블카, 엘리베이터, 탈출정, 잠수정—로부터 모조리 배신당하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다([표2]).²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박무현은 심해 기지 곳곳을 부지런히 탐험하는 과정에서 그곳 내부에 엄존해 있던 사회적 문제들을 자세히 알게 된다. 가령 이름만 전해 들었던 인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그들로부터 심해 기지에서 벌어져 온 여러 사건을 듣고, 자신 또한 그 사건에 깊이 연루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과 독자들에게 심해 기지라는 공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임슨이 20세기 후반의 건축 이론을 통해 설명했듯 “이동 경로는 일종의 역동적인 길 혹은 서사 패러다임”³⁰⁾이라면, 그는 자신의 이동 경로를 끊임없이 연장하면서 각 공간에 서사적 깊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다양한 개념을 하나로 연결하는 별자리를 그리는 것”³¹⁾, 즉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중 신뢰할 만한 자료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라. 송오직 (twitter(또는 X): @songojik),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자료집」, <https://songojik.notion.site/203c32cdd6bc80d38bb0fe4afdd8c7c1> (접속일: 2025. 10.22.)

29) 다음의 인용문은 심해 기지 내부의 작은 공간들에 대한 박무현의 강한 불신을 보여준다. “좁고 정전이 일어나서 멈추는 엘리베이터들. 물이 실시간으로 차오르는 방들. 넓은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좁아터진 숙소와 복도들. 그리고 역시나 비좁아서 팔다리 움직이기도 어려운 잠수정 내부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골치가 아팠다.” (11권)

30) 프레드릭 제임슨,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문화 논리』, 임경규 역, 문학과학사, 2022, 106쪽.

31) 민현주, 「프레드릭 제임슨의 공간적 사유와 그 정치성」, 『비교문학』 제96집, 한국비교문학회, 2025, 100쪽.

심해 기지 내부의 파편적인 공간들을 자신의 지각 체계 안에서 관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인식적 지도 그리기의 전략이다. 다시 말해 박무현의 심해 기지 탐험은 단순히 특정 시간을 반복하거나 동일한 공간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숨겨진 사회적 문제와 인물들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려는 정치적 실천이다.

3-2. 입체적인 조연들과 다시-시작하는 세계

〈어바등〉에는 많은 조연 인물이 등장한다. 각 나라에서 보낸 엔지니어들, 연구자들, 채굴팀 직원들, 미용실이나 카페 등 편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그에 해당한다. 그중 여덟 개의 엔지니어팀에 속한 인물들만 정리해도 아래의 〈표 3〉과 같고, 외전까지 포함하면 40여 명의 조연 인물이 등장하는 만큼, 심해 기지의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수많은 조연 인물의 이름과 특징을 숙지하는 일은 꽤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여러 회차에 걸쳐 심해 기지를 차차 파악해 나갔듯이, 박무현은 조연 인물들에 대한 인식 또한 조금씩 확장해 나간다. 그것은 때때로 전혀 모르던 사람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경험이기도, 얼마간 이해한 줄 알았던 사람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는 경험이기도, 매번 한결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기도 하다. 재미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조연 인물들의 무한한 입체성이다. 가령 한없이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던 벤자민은 죽기 직전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박무현을 보호하기도 하고³²⁾, “선량하고 올바른 강자”(7권)인 줄 알았던 엔지니어 가팀 인원들은 종종 강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이는 등³³⁾, 다른 상황에 놓인다면 인물들의 행동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32) “게다가 나는 바로 얼마 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자 남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방패로 쓰는 걸 봤다.”(5권)

는 것을 박무현은 계속해서 깨닫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홀로 기억하는 나만이 당신들의 다른 모습을 안다.”(7권) 그래서 그는, “착한 척하면서 온갖 일에 죄다 끼어들어서 좋은 사람인 척”(5권)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타인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표 3〉 엔지니어 팀별 인원 구성

팀	국가	리더/부리더	팀원 명단(무): 무한교)
가팀	한국	신해량, 강수정	이지현, 김재희, 정상현, 서지혁, 백애영
나팀	일본	사토 류스케	우에하라 스미레, 타마키 유즈루, 타카하시 유리예, 야마시타 히카루, 이치타 유우키, 스즈키 센루
다팀	러시아	블라디미르 세르게예비치 이바노프, 니키타	드미트리 안드레예비치 무라토프, 니콜라이, 소피아, 이리나 바체슬라보브나 무라흐타예바, 빅토르 바실예프
라팀	중국	하이윤, 하오란(무)	리웨이, 슈란(홍콩), 웨이치(무), 쑤쉬안, 홍타오(대만)
마팀	미국	제니퍼 스미스	케빈 월슨, 미첼, 미셸 로페즈, 패트릭, 바트에르겐 보르지긴, 레너드 샌더스, 대니얼 로드리게스, 마크 폴란
바팀	뉴질랜드	리암 마커스, 올리버 사이먼	잭, 해리 우즈, 마커스
사팀	오스트레일리아	리차드 랜덤	썸머, 보스턴, 네바에 홉킨스, 도미니

33) “나는 여기 있는 세 사람을 선량하고 올바른 강자라 생각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면 편 가르기를 하고, 안전하다 느끼는 쪽에 서서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집단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보낸다던데.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믿은 건가.” (7권)

아팀	캐나다	헤일리 랭커스터	아리아 프레이저, 카밀라 휴즈, 소피아 로런트, 타일러 존스(무), 릴리, 빅토리아
----	-----	-------------	---

한편, 〈어바등〉의 조연 인물 중 박무현과 가장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연 엔지니어 가팀 소속의 김재희다. 그는 박무현보다 먼저 무한 루프를 경험해 본 경력직 회귀자로, 화재가 발생한 영화관에서 탈출하기 위해 수없이 죽음을 반복한 전적이 있다. 그런 그는 다시 한번 회귀를 겪기 위해 무한교에 입교했는데, 자신이 무한교 신자라는 사실을 밝힌 후에는 박무현에게 끝없이 체념과 포기를 중용한다. 이쯤에서 죽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거나,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거나, 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버리는 편이 좋다는 식의 충고들이다. 그러나 그는 타인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박무현에 의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5회차의 김재희는 자기 자신을 “망가진 사람”(13권)으로 지칭하면서, 그렇지 않은 박무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13권) 하다고 말한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언정, 이 시점의 그는 이미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자기 발로 해저기지를 탈출해서 나온 상대를 쳐다보다가 라피도포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예전에 이 라피도포라를 대한도로 데려오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재희 씨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라피도포라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대한도로 데려오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려구요.”

내가 모르는 어디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하고 있기를. (15권)

6회차의 김재희는 지난 회차에서 박무현과 쌓았던 관계가 완전히 삭제된 상태에서 우연히 이어진 전화 한 통으로 해당 회차에서의 첫 대화를 나눈다. 그때 박무현은 가이드북에도 쓰여 있지 않은 비밀 계단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부디 포기하지 말고 그 계단을 끝까지 올라와달라고 설득한다. 지난 화재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어 의족 생활 중인 김재희에게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6회차의 김재희는 박무현이 부탁한 라피도포라 화분을 끌어안은 채 약 4,300개의 계단을 끝내 모두 오른다. 그 계단은 건물로 따지면 180층에 해당하는 높이이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이동기계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산책을 수행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알레고리적 기표”³⁴⁾라면, 간단한 난간조차 없는 그 허술한 계단은 계단을 오르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 위치를 계속 되새기게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그 계단은 심해 기지의 입체감을 온몸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로써 김재희에게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간이다. 도무지 완등할 수 없을 것 같은 계단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길이 된다는, 그런 탈출로는 등불 같은 희망을 놓지 않을 때만 가까스로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해당 에피소드의 주된 메시지인 셈이다.³⁵⁾

34) 프레드릭 제임슨, 앞의 책, 106쪽.

35) 동일한 메시지를 보다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또 다른 조연 인물 엠마도 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천재로 인정받은 연구원이자,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을까”(16권) 하고 자문하면서 기후 우울증을 앓던 인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심해 기지에서 무사히 탈출한 그는,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앞으로의 자기 삶을 이렇게 예고하고 떠난다. “과거로 가고 싶어 한 마음을 모르지는 않겠어. 거기엔 이런 우울감은 없겠지. 있는 걸 마음껏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미래가 안 보이는 비참하고 우울한 삶에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으려고 애쓰며 계속 걸어가는 거지. 내가 찾아낸 결론이 뭐든 간에 사이비 종교엔 목매지 않을 거야. 안심해도 돼.

박무현의 타임 루프는 6회차에서 끝난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회귀라는 기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 텍스트의 목적이 아니다. 〈어바등〉은 몇 개의 손가락을 잃고서야 심해 기지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또다시 손상을 입은 박무현의 삶이 그 상태로 계속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탈출에 성공했다고 해서 현실의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육지 세계의 축소판인 심해 기지에서 발견된 여러 사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다. 여기에서 〈어바등〉은 세계-내-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이 갖는 좌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태도와 불충분한 현실에 변화의 압력을 가할 희망의 역량을 기르는 태도, 무엇보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 발광하되 타인을 위해 그 빛을 비추는 “선의의 순환”(4권)을 요구한다.³⁶⁾ SF 소설가인 니시 솔(Nisi Shawl)의 말대로, “위험에 대한 경고보다는 희망을 발견하겠다고 택할 수 있으며, 디스토피아를 파헤쳐 반디스토피아라는 쌍둥이를 찾아낼”³⁷⁾ 수 있다. ‘어디에도 없는 곳(u-topia)’을 꿈꾸며 현실의 엄중함을 외면하는 대신, 파국이 도래한 디스토피아(dystopia)로서의 지금-여기를 직시하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절망으로 가득한 희망을 발명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충분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면서도 희망에 대한 낙관을 놓

작별이야. 여기서 헤어지자.”(16권)

36) 실제로 〈어바등〉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세상에 대한 관점을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바꾸었다고 고백하며, ‘선’·‘선한 마음’·‘선의’ 등 희망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낱말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이와 관련해선 독자들 자신이 〈어바등〉을 사랑하는 이유를 기록해 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라. 익명들(디자인: 심해치킨[twitter 또는 X: @under3km], 「어두운 바다의 등불을 사랑하는 당신의 목소리」, <https://padlet.com/under3kmct/padlet-5kumgeu6eyv2xqb1/wish/0BA3ZpOLdGeeQnPb>. (접속일: 2025.10.22.)

37) 브라이언 애터베리, 『판타지는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 신솔 앞 역, 푸른솔, 2025, 282쪽.

지 않는 태도는 제임슨이 우리에게 요청한 반-디스토피아적 자세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다섯 번에 걸친 회귀 끝에 이 사실을 깨달은 주인공 박무현은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매듭짓는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심해의 바다를 떠올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해의 바다는 어둡지 않다. 거기엔 빛을 품은 생물들이 서로 발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제 심해를 안다.”(16권)

4. 나가며

이 논문은 웹소설 〈어바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미하일 바흐친과 프레드릭 제임슨의 이론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당 텍스트의 시공간성을 분석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어바등〉은 포스트모던 사회 그리고 기후 재난 사회에서 쉽게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류 보편의 문제를 우화적으로 다룬 SF소설이자 기후 소설이다. 〈어바등〉의 첫 번째 장점은, 회귀물이라는 장르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전복하면서도 그림으로써 도리어 해당 장르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젖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웹소설의 장르성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가령 기존 작품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활발히 신진대사하는 유기체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두 번째 장점은, 회귀 모티프를 단순히 서사 전략으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모티프와 소설 속 크로노토프를 긴밀하게 관계지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어바등〉의 회귀 모티프,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 그리고 이야기 전반에 깔린 강력한 주제 의식이 서로 의미 있게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이 논문은 국내 웹소설 연구에 작품론이라는 한 축이 추가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물론 기존의 문학 이론으로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문학을 읽는 행위에는 얼마간 부담이 따르며, 어떤 텍스트는 그러한 시도에 강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그러나 웹소설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중 서사 양식 중 하나이고, 이 순간에도 동시대의 감정 구조를 내장한 수많은 텍스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문제적 장르다. 그러므로 웹소설 연구, 특히 웹소설에 대한 작품론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 낼 것인지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 웹소설 담론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당대적인 텍스트들을 따라 읽으면서 그 과정에서 웹소설 연구의 방법론을 사후적으로 버려내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도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국내 웹소설 가운데 포스트모던 사회와 임박한 기후 재난에 대한 정치한 비판을 시도한 〈어바등〉을 당대의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위치 짓고자 했으며, 기후 소설의 성격을 가진 여하한 웹소설 텍스트들에 대한 주제론적 분석을 후속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연산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17권 완결, 네이버시리즈, 2021.05.20.~2024.03.22.

2. 논문과 단행본

김경애, 「회빙환과 시간 되감기 서사의 문화적 의미 —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 줘』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1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4, 734-743쪽.

김예니, 「웹소설의 미감과 장르교섭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4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37-56쪽.

김정희, 「설화 〈우렁새시〉와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서사 비교를 통해 본 ‘두 번째 결연’의 서사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66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219-254쪽.

김준현, 「웹소설 장에서 사용되는 장르 연관 개념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107-137쪽.

남유민, 「한일 웹소설에 관한 일고찰 — 웹소설 플랫폼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118호, 한국일본학회, 2019, 107-126쪽.

노희준, 「플랫폼 기반 웹 소설의 장르성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64호,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409-428쪽.

라즈 파텔·제이슨 W. 무어,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백우진 역, 북돋움, 2020.

류수연, 「웹 2.0 시대와 웹소설 — 웹 로맨스 서사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9-43쪽.

_____, 「웹소설, 산업의 형성과 과제」, 『K-문화융합저널』 제1권 2호, K-문화융합학회, 2021, 12-15쪽.

문은혜, 「알파타르트 웹소설의 서사 전략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31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5, 297-326쪽.

- 미하일 바흐친,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창비, 1998.
- 민현주, 「프레드릭 제임슨의 공간적 사유와 그 정치성」, 『비교문학』 제96호, 한국비교문학회, 2025, 81-112쪽.
- 박인성, 「한국 SF 문학의 시공간성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245-277쪽.
- 브라이언 애터베리, 『판타지는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 신솔 앞 역, 푸른솔, 2025.
-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79-307쪽.
- 오예슬, 「성좌물' 웹소설의 서사적 특성 연구: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24.
- 음성원·장웅조, 「웹소설에서의 회귀 환생 모티브 활용 연구 —Vogler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39-72쪽.
- 이용희, 「국내 웹소설 연구 현황에 대한 비판적 점검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3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5, 143-174쪽.
- 이지용, 「웹소설의 정의 문제와 가치에 대한 재고」, 『한국문학연구』 제70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2, 47-72쪽.
- 임경규, 「프레드릭 제임슨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재적 가치: 유토피아적 사유의 복원을 위하여」, 『영어권문화연구』 제14권 1호,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021, 141-165쪽.
- 제이슨 W. 무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자본의 축적과 세계 생태론』, 김효진 역, 갈무리, 2020.
- 케일 캐리거, 『여자는 우주를 혼자 여행하지 않는다』, 송경아 역, 원더박스, 2025.
- 프레드릭 제임슨,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문화 논리』, 임경규 역, 문학과지성사, 2022.
- 홍우진·신호림, 「웹소설 〈소설 속 엑스트라〉의 빙의 화소를 통해 본 정체성의 문제와 가능세계의 양상」, 『국제어문』 제98호, 국제어문학회, 2023, 39-64쪽.

3. 기타자료

- 송오직(twitter(또는 X): @songojik),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자료집〉,
<https://songojik.notion.site/203c32cdd6bc80d38bb0fe4afdd8c7c1>.
(접속일: 2025.10.22.)
- 이지용 외, 〈한국 SF 어워드 2022(제9회) 웹소설 부문 수상작 및 심사평〉, 『SF 어워드』,
<https://sfaward.kr/77>. (접속일: 2025.10.22.)
- 익명들(디자인: 심해치킨(twitter 또는 X: @under3km), 〈어두운 바다의 등불을 사
랑하는 당신의 목소리〉, [https://padlet.com/under3kmct/padlet-5kum
geu6eyv2xqb1/wish/0BA3ZpOLdGeeQnPb](https://padlet.com/under3kmct/padlet-5kumgeu6eyv2xqb1/wish/0BA3ZpOLdGeeQnPb). (접속일: 2025.10.22.)

Abstract

The Spatio-Temporal Dynamics of the Web Novel *Be A Light in the Dark Sea* - From Failed Utopia to Anti-Dystopia

Jung, Yoon-Young(Yuha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stinctive temporality and spatiality of the popular Korean web novel *Be A Light in the Dark Sea* (hereafter *LDS*), demonstrating how these narrative dimensions are closely interlinked with the characters'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the work's overarching thematic consciousness. The spatiotemporal background of *LDS* exerts a profound influence on the narrative as a whole, comparable in significance to Mikhail Bakhtin's concept of the chronotope. Accordingly, this paper identifies within *LDS* a peculiar configuration of time and space that differentiates it from the conventional "regression" narratives frequently found in contemporary web fiction.

Specifically, the work's nonlinear temporality—often referred to as a "time loop"—does not serve as a mechanism for the protagonist's empowerment or for improving his external circumstances. Instead, as he repeatedly dies and comes back to life, he gradually expands his understanding of both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deep-sea base, located 3,000 meters below sea level, and the people who inhabit it. As the story unfolds, it becomes apparent that escaping the deep-sea base is impossible without first exploring and comprehending it. For readers, the protagonist's perilous exploration ultimately functions as a cognitive mapping of our own "failed utopia," the here-and-now of lived reality. This interpretive trajectory resonates with Fredric Jameson's notion of cognitive mapping, a quintessential political act through which the individual struggles to overcome the

disorientation and loss of bearings characteristic of postmodern society.

On this basis, the paper argues that *LDS*) represents a significant accomplishment in both the narrative experimentation of Korean web literature and the formation of contemporary discourse grounded in an acute sense of the present moment. Furthermore,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novel's "regression" motif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mere adoption of a popular narrative device, but rather as an effective structuring principle that reinforces the work's thematic vision. The paper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scholarly importance of this analysis as a rare and substantive work-centered study—one that contributes to filling the critical gap in current research on Korean web novels.

(Keywords: Web Novel, Contemporary Fantasy, Regression Narrative, Time Loop, Chronotope, Cognitive Mapping)

논문투고일 : 2025년 8월 29일
논문심사일 : 2025년 10월 15일
수정완료일 : 2025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0일